

()/

일본 경기는 회복 기조에는 있지만 추동을 향한 어패럴 소비 전망에는 아직도 불투명감이 감돈다. 생활자의 개성화, 다양화로 히트 상품을 읽기 어려워졌지만 그렇게 말하는 가운데 여성, 신사, 캐주얼 등의 각 분야에서 추동의 기대 아이템을 검증한다.



추동의 레이디 패션은 클래식이나 페미닌을 기조로 포크로나 밀리터리, 트래드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융합되면서 추이한다. 키포인트는 많이 있지만 보통스에서는 춘하에 대두한 스커트 아이템이 한층 더 그 쉐어를 펼칠 것 같다.

보통스 아이템은 요 근래 여러 시즌, 아름다운 다리나 청바지가 상징되도록 팬츠 우세의 흐름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것이 이번 춘하를 경계로 스커트가 급속히 부상해 왔다. 영 존에서는 타이트 미니 기장이 눈에 띄는데 전반적으로는 길이가 긴 볼륨 타입이 주류다.

7, 8월 상품전에서도 스커트는 계속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 가을철 물건 본격화를 앞두고 기대감을 한층 더 높이고 있다. 초가을 제품에서는 레나운의 “엔스위트”는 옷자락에 분량감을 갖게 한 스웨드조 타입, 룩의 “스캐파”에서는 코튼 샴브레이나 플라워 프린트의 볼륨 타입 등에 움직임이 벌써 나오고 있다.

향후 더욱이 기세가 강해질 것 같은 스커트에 대하여 추동 대응에서는 그 바리에이션을 전 시즌 이상으로 넓히고 있다. 三陽상회의 “트와비 식크”에서는 보통스 구성비야말로 전 시즌과 변함없지만 그 중에 스커트 비율을 높이고 있다.

실루엣에서는 계속해 개더나 티어드 타입 등, 볼륨 스커트가 주류가 된다. 타이트게나 머메이드(mermaid)계에 가세하여 새로운 짝으로서 벌룬 타입에도 주목한다. 이것들 볼륨 스커트에는 컷 소나 니트 모두 컴팩트한 테일러드 재킷을 합하는 것이 추동의 기본 스타일링의 하나가 된다.

소재는 새틴이나 시폰과도 트위드나 벨루어, 데님 등이 시즌성을 나타낸다. 테크닉에서는 자수나 레이스 사용하여 이소재 변환이나 패치워크 타입 등 가치 지향을 강하게 하는 경향에 있다.

그 한편으로 팬츠 아이템에서는 美脚계나 청바지 등이 정변화함과 동시에 볼륨 스커트의 영향을 받아 와이드나 플레어 등의 팬츠가 신경이 쓰이는 존재가 된다. 부츠와 합하는 것을 목표로 무릎 전후의 어중간한 키의 팬츠에 주시해 갈 필요가 있다.

() /

이번 추동은 아우터 아이템의 바리에이션이 지금까지 이상으로 확대한다. 그러한 목표는 “탈 코트”로 따뜻한 겨울에 대한 코트 부진을 회피한다. 특히 한 때의 수입 일부였던 울 코트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기대감이 적고 거기에 대신하는 것으로서 재킷이나 블레이저 코트, 아우터 타입의 니트 등의 강화가 눈에 띈다.

추동 아우터인 경우 트렌드 선취 고객을 상대에게 무튼이나 퍼를 사용한 트렌드 아이템을 서서히 전개하는 경우는 있으나 조류는 저스트 시즌 대응 중시한 스탠스에 있다. 그 때문에 연내에는 재킷을 중심으로 한 아우터 아이템을 밝히는 패턴이 지배적이다.

신선하여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재킷이나 블루종 등을 다채롭게 제안했던 것이 월드의 “스체소”이다. 실크 태피터의 쇼트 재킷에는 얇은 속통을 넣어서 경쾌한 별론 타입으로 마무리했다. 이 외에 옷깃 등에 와이어를 짜 넣어 생각했던 대로의 형상을 즐길 수 있는 타입이라든가 트위드나 데님 소재에 의한 속통 타입 등 전체적으로 부가 가치를 높이고 있다.

단품의 강화를 밝힌 이토킨의 “크란듀”는 페미닌 칼라로 표현한 퍼 재킷이라든가 코듀로이, 벨벳에 의한 컴팩트 재킷, 니트 재킷 등으로 추동 아우터를 전개한다.

추동 아우터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트리밍 타입을 포함한 퍼 재킷(퍼 니트)과 함께 테일러드 재킷이 된다. 테일러드 타입의 상당수는 트렌드가 되는 깊은 곳이 있는 색채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그 중에 주목하고 싶은 것이 감색 블레이저(감색의 블레이저 코트)이다.

레나운은 “어니 아놀드 파머”라든가 “헨리 코튼즈 돈나” 등으로 감색 블레이저를 키 아이템으로 설정했다. 전자의 경우 추동부터 새롭게 프레피 라인을 도입하여 아가일이나 레지멘탈 스트라이프, 금 버튼 사용 등을 한 무거운 의류 아이템을 주력으로 구성

한다. 따라서 키 아이템이 되는 것은 감색 블레이저로 한 때의 박스형과는 달리 샤프한 실루엣으로 오늘날과 같은 감색 블레이저를 표현했다.

()/

최근 몇 년, 추동 시즌은 늦더위, 따뜻한 겨울 대책이 포인트가 되어 있다. 온난화에 가세하여 생활자의 캐주얼화를 배경으로 연중 컷 소나 니트가 파워 아이템이 된다. 특히 지금까지는 시즌성이 강했던 컷 소가 추동에도 파워 아이템의 하나가 된다.

저스트 시즌 대응 강화의 일환으로서 한 여름, 초가을 제품에서는 컷 소가 견인 아이템이 되고 있다. 三陽상회의 “폴 스튜어트”는 메탈 버튼을 사용한 스키퍼 옷깃이 붙은 타입 등이다. 한 여름의 기획인 컷 소가 움직였다. 온워드檜山の “23區”에서도 캐미솔이나 폴로셔츠를 중심으로 가을풍의 여름 소재 타입이 세일기의 적절한 대응으로서 반응이 높았다.

추동물에 대해서 트렌드 브랜드 등으로는 퍼 타입이나 코트 등에서 이번 추동을 이미지하는 아이템을 선행 판매하는데 실수요 지향의 고조로 전반적으로 이러한 경향은 약해지고 있다. 그 때문에 지금까지 이상으로 강화하고 있지만 컷 소 니트를 중심으로 한 중경의류 아이템이다.

룩의“토우 시”에서는 가을 출하는 니트보다 컷 소에 주력한다. “니트의 따뜻한 감보다 컷 소의 저스트감”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것도 늦더위 대응의 하나가 된다. 컷 소는 레이스와의 콤비네이션이나 스팅글 사용 등 부가가치 타입을 전개한다.

한편, 니트는 그 역할을 확대하여 더욱 높은 가치관의 구현화가 중시된다. 이토킨의 “에스페”는 수공 수예품 지향의 비즈 자수라든가 퍼 트리밍 등을 한 러그 주얼리 타입의 니트를 전면에 내 놓는다. 또, 나이가이의 “엠엠마이유”에서는 코트에 대신하는 것으로 니트 가운 타입을 제안한다.

빅토리안 테이스트 등 이번 추동은 클래식 경향의 강세가 예상되는데 여기에서 주목 아이템으로서 부상할 것 같은 것이 셔츠블라우스이다. 작업복풍이나 피전트풍 타입은 이번 춘하에서도 히트 상품이 되고 또 이번 시즌부터는 보우타이나 리본을 사용하고, 프릴을 사용하고 또 분량감이 있는 슬리브 등, 클래식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타입의 움직임이 신경 쓰이게 되는 경우이다.

()/

회복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신사복 분야이지만 그것은 아직 일부의 브랜드, 판매장에 한정된 것으로 볼륨 존에서의 회복은 지금부터이다. 확실히 올 여름은 쿨비즈 효과로 전반적으로 백터는 오름세에 있지만 추동 이후는 아직도 불투명감이 감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추동 신사복 분야에서는 고급화나 캐주얼화, 새로운 스타일링 제안 등이 포인트가 된다.

한때 저가격 일변도의 흐름으로부터 지금은 각 채널에서 고급 지향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슈트 등 두꺼운 의류 존에서는 소재를 포함하여 고급화가 트렌드이다. 춘하 판매 경쟁에서 슈트 재킷이 호조로 추이한 三陽상회의 “폴 스튜어트”는 2005년 8월 중순부터 패턴 오더(PO) 페어를 함으로써 슈트의 선행 수요에 대응한다. 또, 재킷에서는 импорт 소재를 중심으로 고급화를 꾀하여 신제안의 빌로드 재킷 등으로 시즌성을 소구한다.

올 여름의 쿨비즈로 시장 전반에 단번에 침투한 “노우 타이” 스타일이지만 재빨리 “언 타이드(untied)”로서 노우 타이를 다루어 온 다아반. 추동은 “다아반” 브랜드로 재킷 강화에 의해 “언 타이드(untied)” 스타일의 질을 지금까지 이상으로 높인다. 구체적으로는 타스 매니아 올, 캐시미어라고 하는 고급 타입이나 능직 면 타입, 이탈리아제 핸드 메이드 타입 등을 전개한다. 이것들에 의하여 9월에는 PO페어를 개최한다.

신사복 분야의 강화를 내건 월드에서는 이번 봄 도입한 고급 브랜드 “하룻즈”에 이어서 이번 가을부터 새로운 브랜드 “쿨 스트라틴”을 전개한다. 새롭게 제안한 포인트는 “슈트”로 “멋을 즐길 수 있는 슈트”를 전면에 내 놓는다. 대상은 30~50대의 성인 세대이다. 여기에서는 진짜를 추구하여 영국 소재라든가 펜슬 스트라이프 등에 구매되어 간다. PO슈트 제안도 그 일환이 된다.

고급 지향이 강한 어른 세대는 소재, 사양, 디테일 등 모든 면에서 조건을 가진다. 이것은 향후 더욱 더 강해지는 경향에 있어 거기에 대한 대응이 신사복 분야 활성화의 열쇠를 쥐고 있다.

()/

남성 패션 수요를 환기하는 요소에서는 캐주얼 강화와 트렌드 지향이 중요해진다. 이번 추동 시즌도 세대를 불문하고 이것들이 포인트가 될 것은 틀림없다. 그 배경에는 영 세대에 있어서의 레이디스 같은 수준의 트렌드 지향과 함께 성인 세대의 “남자의

멋 부리기”에 대한 의식의 고양, 더욱이 쿨비즈의 영향으로 캐주얼 아이템이 비즈니스 신에 이용된 것 등이 있다.

쿨비즈 효과로 셔츠는 계속하여 호조이다. 온워드櫟山の “23區”에서는 이너, 아우터 양쪽 모두 긴소매 셔츠가 히트 상품이 되었다. 특히 반응이 높았던 것이 “아름다운 등 셔츠”이다. 美脚팬츠에 매치하여 컴팩트한 실루엣과 약간 좁은듯한 소매 폭, 약간 짧은 듯한 옷 길이라고 하는 정도로 엘레강스하고 멋진 타입이 된다.

다아반의 “인터 메시오”는 가을철 물건으로써 먼 100%의 긴소매 리버시블 셔츠에서 카키색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부 점포에서는 프런트 zip을 사용한 스웨드 블루종 등을 투입하여 소재감으로도 시즌 소구를 높이고 있다.

남성 패션의 캐주얼 지향은 성인 세대에도 확실히 침투하여 그 때문에 같은 세대에서 데님의 존재가 영 세대와 같이 불가결한 것이 된다. 이번 달부터 三陽상회의 “더 스카치 하우스”는 톨팬 면을 사용한 원 워쉬 데님을 투입하여 스트라이프나 체크 셔츠 아우터와 코디네이터를 전개하고 있다.

과연 레이디와 같이 온 타임 신으로는 제안하기 어려운 데님이지만 나이가이는 “어쉬 엘”로 온 타임 대응한 데님으로서 얼룩사를 사용한 스트레치 타입의 블랙을 내 놓았다. 이것에 벨벳이나 코튼/울의 재킷 등을 맞춤으로써 캐주얼한 파티 신에도 위화감 없이 착용할 수 있다.

데님과 함께 시즌 소재로서 기대되는 것이 벨벳이나 코듀로이, 트위드, 레저 등이다. 이들은 추동 레이디 패션에도 해당한다. 일찍이 남성 트렌드는 레이디스보다 1년 지연된다고 하였으나 그것은 지금 먼 옛 이야기가 되었다.

() /

셔츠 단품의 사이는 두렵지 않다. 쿨비즈 효과로 백화점이나 양판점의 남성 웨어 판매장이 활기가 붙어 비즈니스 거리에서는 노 넥타이의 셔츠 모습이 이번 여름, 완전히 정착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은 지금부터”라고 어패럴 디자이너들은 입을 모은다.

나라의 보증 문서도 있고 9월말까지는 “쿨비즈”라는 이름이 붙기 때문에 노우 넥타이의 셔츠 모습으로 출근을 계속해도 위화감은 없다. 그러나 통상 우란분재가 끝난 이후, 특히 9월에 접어들고 나서의 반소매 셔츠 모습은 줄어든다. 반소매 모습으로도 상관없지만 재킷이 필요하게 되는 시즌을 맞이한다.

어패럴의 디자이너가 지적하는 “두려움”이란 이러한 재킷을 노우 넥타이로 맵시 있게 입는 것의 어려움을 가리킨다. 게다가 쿨비즈 실천 중이라고 하여도 비즈니스 신에서는 아무지 못한 모습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 같은 밸런스가 좋은 옷 입기가 필요하다.

재킷에 익숙하고 친숙하게 지내고 있는 세련된 사람이라면 문제없지만 “상의”라고 하면 슈트 밖에 몰랐던 사람이라면 노 넥타이의 재킷 스타일이 진짜 의미로써의 쿨비즈 실전이다. 금년의 추동의 가장 적기인 패션 스타일이 될 것이다.

캐주얼 어패럴인 日登美(大阪市 天王寺區)는 백화점의 남성 웨어 판매장이 쿨비즈로 활성화 한 덕분에 이번 여름, 백화점 매상이 전년 동 시즌 대비 5% 증가하고 이러한 기세로 추동에 임할 생각이다.

비위를 잘 맞춘 것은 아메리칸 캐주얼계 “뱀프스”나 “체프스”이다. 아이템에서는 재킷이 추동 편성의 주축이 된다. 이너에는 면 소재 컷소 반소매 셔츠(1만엔까지)가 성인층을 중심으로 호평이다. 포면은 수세를 한 마 100%의 셔츠가 예년 이상의 매출로 마재킷도 호조이다.

동사는 추동에도 재킷을 주축으로 한 편성의 제안을 강하게 하여 추동 소재로 변경하는 비즈니스, 놀이복의 양쪽 모두에 통용되는 재킷 패션을 제공한다.

셔츠는 추동에도 보턴다운 등 백색의 드레스 타입에 기대한다. 보톱스에서는 울 외에 데님의 트라우저즈 팬츠를 조합한 옷 입기를 성인에 대한 신선한 옷 입기로서 행한다.

어려운 재킷의 노 넥타이로 맵시 있게 착용한다. 노 넥타이의 셔츠 모습에서부터 한 걸음 전진하여 재킷 패션에 도전하는 셀러리맨들에게 제안이 계속된다.

()/

재킷에 청바지를 조합하여 맵시 있게 입는 “세련된 스타일”은 일본에서는 남녀 모두 충분히 보급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런 환경 하에서 재킷의 보톱스에 어떻게든 청바지 팬츠를 착용시키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대기업 청바지 어패럴은 이번 추동용으로 차세대형의 다리가 예쁘게 보이는 청바지 팬츠를 개발, 동시에 적기에 맵시 있게 입을 수 있는 제안을 강하게 하고 있다.

최신작 “新美脚 엘레강스” 청바지를 본격 판매하는 빅 존은 새로운 이미지 캐릭터에 텔런트로써 모델인 요시카와 히나노씨를 추동부터 기용하여 “차세대의 美脚청바지”라고 옷 입기를 넓게 어필한다.

동사가 텔런트 캐릭터를 기용하는 것은 5~6년만이라고 한다. 이번 신상품에 알맞는 이미지 캐릭터가 필요와 판단, 연예계에서 으뜸가는 스타일의 소유자인 그녀로 결정했다.

리바이 스트라우스 저팬은 “501” 등 정번품의 강화책의 일환으로서 이번 봄부터 “스테이 트루(STAY TRUE)” 캠페인 실시 효과가 나타나 남녀 모두에 코어 아이템의 매출이 호조이다. 더욱이 여성 취향의 “리바이스 레이디스 스타일”의 이번 추동 신 모델에서는 1940년대부터 계속되는 “고전”적인 디자인을 재현한 모던 빈티지 청바지를 추가하여 8월 27일부터 전국 일제히 스타트하는 판촉 캠페인으로 이러한 고전적인 착용 방법을 호소해 간다.

또, 정번 청바지보다 한층 큰 사이즈의 포켓 등을 장식한 “A타입” 청바지를 먼저 발매하여 “정번에 플러스 알파적 요소를 부가한 청바지”를 요구하고 있던 고객의 요구에 응했다.

더욱이 최적인 청바지를 선택하는 보디 측정 머신 “인텔리 피트”를 기간 한정으로 일본에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이번에 리바이스 스토어 池袋店을 시작으로 동 스토어 5개 점포에서 실시 중이다.

추동 시즌의 새로운 옷 입기가 제안되는 가운데 환경성은 8월 22일, 지구 온난화 방지는 난방 온도를 20℃로 내리는 것도 실현될 수 있다고 여름의 쿨비즈에 이어 추동의 “웜비즈” 실시를 발표했다.

청바지 어패럴의 기획 담당자는 이러한 보도에 “재킷 밑에 터틀넥이나 폴로, 베스트, 보텀스에 청바지라고 하는 추동의 고전적인 드레시 캐주얼 스타일이 부활할 것 같다” 하며 여름에 계속되는 추동의 순풍에 웃는 얼굴을 보인다.

()/“ ”

지금까지 여성, 신사, 캐주얼의 각 분야의 어패럴 제조 도매가 이번 추동 시즌에 기대하는 잘 팔릴 것 같은 아이템을 중심으로 핫인 아이템이나 화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리포트 중에 환경성은 이번에 겨울의 난방 온도의 설정을 20℃로 낮추는 노력을 하면

냉방 설정 온도를 28℃로 하여 실천 중인 “여름의 경장” 쿨비즈 이상의 지구 온난화 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희소식을 듣고 실질적인 추동의 “輕裝”이 아니라면 “웬비즈”를 입는 따뜻한 모습을 추천 하려고 하는 어패럴은 기대되는 캐주얼화에 의한 비즈니스, 평상복의 두 가지 신의 패션 스타일 계몽 활동에 지금부터 나선다.

해당하는 모든 어패럴이 “웬비즈” 대응으로 생산면에서도 지금부터 쫓기는 것으로 보여 진다. 앞서 여름에는 예상외의 특수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 생산으로 고생한 어패럴이 적지 않았다.

여름과 겨울의 “전력론”으로 말하자면 나라는 냉방 설정 온도(28℃)보다 낮은 난방을 선택하는 쪽이 지구 온난화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 결과이다. 난방 온도의 저하에 의한 “방한”을 위한 자위책으로서의 패션 스타일은 여름 이상으로 바리에이션이 확대 될 것 같다. 이번 추동의 바리에이션이 아무래도 “웬비즈”의 실천에 따라 제일 적기가 화제로 되는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여름에 이어서 노 넥타이, 자켓 밑에는 각종 셔츠에 더하여 새로운 니트 관련 상품이 많이 소개되게 될 것이다.

나라로부터 이러한 발표를 듣고 어패럴 제조 도매하는 라이카(大阪市 中央區)는 남성 웨어에 있어서는 여름에 계속되는 순풍(久保田雅博 어패럴대 본부 본부장)이라고 본다. 사내에서 즉시 추동에서 예상되는 “웬비즈” 패션에 대해 서로 이야기했다고 한다.

추동의 웬비즈는 당연히 노 넥타이가 전제이다. 사무실 내의 온도가 20℃가 되면 다소 두꺼운 벨 셔츠로도 쌀쌀하다. 여름의 쿨비즈에서의 “소매 부착 원칙”을 제외해 옷 입기를 널리 실천한다고 하면, 이번 추동의 남성 웨어의 맵시 있게 입기, 코디네이트의 폭은 크게 전진할 것이다.

일본의 패션 업계에서 1940년대경부터 해외에서 고전적인 “양복” 문화에 편승한 옷 입기는 1980년대의 DC(디자이너즈&캐릭터)에 이르기까지 높은 수준의 세련함을 유지했다.

통상 추동 패션은 여름 이상으로 감도가 높다. 이번 웬비즈가 업계, 시장에 대해서 얼마나의 감도를 가지고 자극하여 밝은 “재료”로서 여기저기 돌아다닐 것인가 주목할 점이다. 📖